

##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李秉根 \*

# 1

**해바라기** 〔国〕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학명은 *Helianthus annuus* L.이다. 해바라기라는 이름은 두상화서가 해를 따라 도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붙여진 것이다. 북미원산이며 전초에 짧은 강모가 나 있다. 잎은 어긋나고 심장꼴이며 대형이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여름철에 노랗게 피며, 줄기 끝에 대형의 두상화를 이루는데, 가장자리에는 혀꽃의 꽃이 늘어서고 가운데에는 관상화가 빽빽이 늘어선다. 꽃이 진 뒤 가을철에는 검게 익은 수과로 되고, 모여서 등근 벌집꼴로 된다. 수과에는 고급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식용유, 특히 성인병 방지에 좋다고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이 육종되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줄기속[莖心]을 약재로 이용하고 있다. 약성은 온(溫)하고 감(甘)하며 이뇨·진해·지혈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소변불리·요로결석·방광결석·신경석·해소·백일해·외상출혈의 증상에 치료제로 사용한다. 또, 해바라기속의 일종인 돼지

---

\* 본과 교수

감자(일명 뚱딴지)는 뿌리줄기에 인ulin(inulin)이 많이 들어 있어 식용 또는 알코올 제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번식력이 강해서 각처에서 자생상태로 자라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物과 名, 그 개념 사이의 관계는 언어기호를 통해서 환기된다고 고전적인 구조주의로부터 강조되었어도 그리고 어린애들이 견문(見聞)하는 物과 그 名과의 부합을 통해서 한자를 깨닫게 한 뒤 딴 한자의 학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자 학습상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訓蒙》(名會)를 지은 崔世珍이 있었어도 아직도 物과 名 사이의 관계는 정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葵'하면 ①아욱 ②해바라기 ③촉규화(蜀葵花) 등으로 풀이하고 있어 결국 어느 物을 가리키는 名인지 알 수가 없고 또 '蜀'하면 ①촉규화벌레족, 해바라기벌레족 ②큰닭족 ③땅이름족 등으로 되어 있으면서 '蜀葵'라 하면 '접시꽃'이고 '葵花'라 하면 '접시꽃, 해바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분명히 알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상징적인 의미인식의 세계로 발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해바라기(向日花)'란 物을 나타내는 名으로서의 단어들을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어휘사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일찍이 한 헌생(周時經)은 그의 마지막 저서 《말의소리》 끝부분에서 '낫말'을 몸과 토로 나누고 다시 각각 '임, 엇, 움'과 '것, 잇, 굿'으로 나누고서 이 '낫말'이 다시 분석될 수 있는 '꾸민씨'를 위해서 분석의 기호로 '별잇'인 ^ 를 설정한 바 있는데, 그 보기로 '해바라기'를 들었다. 이를 '해 ^ 바라 ^ 기'로 표시하였는바, '해#바라+기'의 세 '늦씨'로 구성된 '꾸민씨'로 분석한 셈이다. '해바라기' 자체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국어사전에서 방언형을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한 郭忠求(1997)에서 '해바라기'의 방언형들을 제시하고 간략히 검토한 바 있다. '(해)바라(𡊞)-계와 '(해)자불(眠)-계의 두 종류로 나누어 음운사적 · 조어론적 해석을 꾀하였다. '해바라기'에 대한 조어론적 분석은 곧 "해를 바라는(즉 向日하는) 것"으로 뜻풀이하게 되어 이의 뜻풀이를 태양을 향하는 식물로 인식하여 만들어진 언어기호임을 보인 것이다. 현대국어 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에서는 '해+바라=+-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어

원을 밝히려는 기술에서도 그러한데,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간행인 《어원사전(詞源辭典)》(198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목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 <목운동>은 꼭 해빛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 진행된다. 여기로부터 해를 항상 바라보는 꽃이라 하여 해바라기라고 한다. 해바라기라는 단어는 많은 언어들에서 각이한 뜻으로 불리우고 있다. 조선말에서는 해를 항상 바라보며 피는 꽃(해바라기)이라고 하고 중국말에선 <해를 향한 꽃(向日花)>이라 하며 일본말에서는 <해를 따라 도는 꽃(ヒマワリ)>이라 한다. 로마에서는 <해 밑에 있는 꽃(подсолнечник)>이라 하고 영어에서는 <해와 같은 꽃(sunflower)>이라 한다.

문학작품의 경우를 보자. 장덕조(張德祚)의 단편소설 <해바라기>(1937)를 문학소녀처럼 감동하는 아내가 무심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향한 ‘안 해의 마음’으로 ‘해바라기’를 상징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한다면 ‘해’는 남편이고 ‘해바라기’는 向日花 같은 아내가 되는 셈이다.

김광섭의 <해바라기>(1957)는 더욱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 가을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 양 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있다 /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혼신된 모습 / 생의 구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가니 / 한 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 늠름한 잎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에서 직접적으로는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혼신된 모습”에 ‘해바라기’가 놓인 셈이다. 이 표현 역시 ‘해(白日 = 태양) + 바라 - 기’의 의미로부터 온 묘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장덕조의 경우나 김광섭의 경우는 ‘해#바라-기’의 조어력(造語力)에 평행되는 문학

적 서술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向日’과는 반대의 개념도 있을 수 있는바, 윤석중의 동요(홍난파 작곡)인 ‘해바라기’가 바로 그 예이다.

둥근 얼굴 얹었건만 해만 뜨면 따라 웃고  
해만 지면 시집가는 색시처럼 수그려요

에서 '(해를 따라 웃고) 수그리는 해바라기'가 되어 '(해)바라-'의 반의어 '수그리-(垂, 低頭)'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해바라기'가 갖는 속성의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垂日花, 低頭花' 정도의 새로운 조어력의 가능성을 보여 준 셈이다.

이와같이 단어를 창조할 때에 '物'의 속성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인식에 따른 단어의 형성이 가능한 것이 인간의 세계일 수가 있는데, 그 한 예로 농기구의 한 가지인 '고무래'를 뜻하는 物1)을 지역방언에서 '밀개'로 불리기도 하고 그 반대로 '당그래'로 불리기도 한다. 흙이나 곡식을 펴고 그려모으기 위해 하는 '밀고, 당기는' 행위 가운데서 어디에다 의미초점을 두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가 하는 인식이 조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sup>2)</sup> 이는 물론 공시론적인 논의이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가 여럿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 여럿의 형성사(形成史)를 추구한다면 통시론적 논의가 될 것이고 어휘사의 하나인 어원의 논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해바라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어휘사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해바라기' 중에서도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서의 그것에 한정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어형들에는 방언형으로 쓰이는 ①'해바라기'계 ②'해자부리'계 ③'해가우리'계 등이 있고, 한자어 '向日葵, 向日葵, 葵花' 등이 있다. 이들의 어휘사적 구명이 바로 현재의 목표인 것이다.

1) 논밭의 흙을 고르고 씨 뿌린 뒤에 밭의 흙을 덮으며, 곡식이나 채 따위를 그려모으거나 펴거나 하는 데에 쓰는 농기구의 한 가지. 장방형·반달형 또는 사나리꼴 등의 널조각 위쪽에 자루를 박아 'T'자 모양으로 만듦. 『새 우리말 큰사전』(1975)

2) 담뱃대의 부분 명칭으로 /물뿌리/와 /빨뿌리/도 그렇하다. 즉 담뱃대의 부리 부분인 연취(煙嘴)를 입으로 '물나'로 인식하는가 '(연기를) 빨다'로 인식하는가 하는 차이를 보인다. '무는' 행위가 옳다거나 '빠는' 행위가 옳다거나 하는 것은 인식의 세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2

'해바라기'의 방언형을 크게 ①'해바라기'계 ②'해자부리'계 ③'해가우리'계로 나누고 이에 각각 속하는 구체적인 방언형들을 분류·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바라기'계 : 해바라기, 해바래기, 해바레기, 해보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지, 해바리, (해바락)
- ② '해자부리'계 : 해자부리, 해자브리, 해자불, 해재부리, 해자바리, 해자브리, 해자바래기, 해자부래기, 해자우리, 해자와리, 해자우래기, 해즈래배기
- ③ '해가우리'계 : 해가우리, 해갸우리, 해개우리, 해가오리, 해구와리, 해구랭이, (해가부리, 해갸부리, 해개부리)

이들 세 부류의 어형들은 지리적 분포상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다.

- ① :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횡성·평창·삼척), 즉 남한의 대부분
- ② : 강원도(대부분), 함경남북도(대부분)
- ③ : 황해도, 평안남북도

즉 남한의 대부분은 ①이 분포되어 있으나, 크게 보아 강원도·함경남북도의 대부분은 ②가, 그리고 황해도·평안남북도는 ③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②가 쓰이는 함경남북도와 그에 이어진 강원도는 다시금 원산-함흥지역에서 '해자부리'와 같이 'ㅂ'계와 '해자우리'와 같이 'ㅂ > w'계로 나뉜다. 원산-함흥 사이의 지역은 '해자부리'와 '해자우리'가 함께 쓰이는 접촉지역이다. 함경북도의 최남단 지역인 학성군에서는 '해자부리, 해재부리, 해자바리' 등과 함께 '해기부리'가 쓰이고 함경남도 동북부지역에서는 '해자바리, 해자부리' 등이 쓰인다. 그리고 북한의 강원도 지역의 내륙에는 경기도에 이어지면서 '해바라기'를 쓰는 지역도 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세 부류의 형식에 대한 어휘사를 검토하여 보자

'해바라기'는 주시경이 분석한 것과 비슷하게 /해 ^ 바라 ^ 기/로 볼 수 있다. 좀더 정확히는 /해#바라+기/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向日花로 본다면 '해 = 日(太陽)'과 '바라- = 向(仰, 望, 迎, 希)'과 같은 어휘형태소(주시경의 술 어로는 '몸')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태여 중세어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해 < 헤'와 '바라- < 브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헤바라기'의 '헤'는 이 방언에서 흔히 일어났던 /이/의 음운변화를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鄭承喆 1995). 그런데 문제는 '바라- < 브라-'에 있다. 대부분의 서남방언이나 많은 동남방언에서 겪은 어두 순음 아래에서의 / · > 그/와 같은 원순모음화를 '해바라기'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식물학자들이 서술해 놓은 바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개화기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순음 아래에서의 / · > 그/의 원순모음화가 완성된 때이어서 '해보라기'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 · > 그/의 변화를 보인 중부방언에서 '해바라기'가 형성되어 이 명칭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서남방언에 속하는 서남부지역의 진도(珍島)에서 '해보라기'가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위의 해석에 따르다면 원순모음화에 의한 방언형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이 '해보라기'의 '-보-'는 비록 어두 위치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많은 원순모음화형에 잘못 이끌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남방언권에 속하는 경상남도 창녕 · 함안 · 의창에서는 특이하게도 '해바리(鶴)'가 쓰이는 것으로 《한국방언자료집》에 보고되어 있다. 만일 이 '해바리'가 '해바라기'의 변형이 아니라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즉 /해#발+이/를 가정하여 傍日花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발-'은 15세기에 다음과 같이 쓰인 것으로 《李朝語辭典》에 예문이 실려 있다.

- 빠를 바느니(旁舟輯) 《杜초十八 3》
- 실에를 바라 韋帙을 玆조기호고(傍齊書帙) 《杜초七 6》
- 琴臺를 바랫느니오(傍琴臺) 《杜초七 3》
- 阡陌에 바랫도다(傍阡陌) 《杜초七 26》

이 자료에 기대어 /해(日) #발(傍)+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해를 따르는 꽃”으로서의 傍日花(?)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언에서 적어도 ‘해바라기’를 처음 대했을 때에 ‘발-’이 傍을 뜻하는 동사로 쓰였어야만 이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로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쓰이는 방언형 ‘해자부리’계를 검토하여 보자. 이 ‘해자부리’계는 다시금 ‘해자부리’계와 ‘해자우리’계 두 계통으로 나뉘어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함경북도로부터 아래로 이어져 함경남도 함흥 정도까지 분포되고 그 아래로 강원도 대부분(경기도에 접해 있는 원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및 경상북도에 접해 있는 삼척은 ‘해바라기’형)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해자부리’계와 ‘해자우리’계는 결국 표면적으로는 ‘ㅂ’의 유무로 갈리는 데, 그것은 / 甁/의 음운사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이 글에서 가정하는 이전의 형식은 \*/희 # 즈불 + 이/로서 /-甁-/ > /-ㅂ-/과 /-甁-/ > /w/ 두 변화 중에 선 어느 쪽을 따랐는가로 갈리어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상이하게 투영된 것이다. 여기서 가정된 \*/즈불-/은 /즈불-/ > /즈을-/ > /졸:-/ 과 같은 단계변화를 밟았다고 해야 하는데, 둘째 단계가 바로 15세기에 해당된다.

- 즈옳 저기라도 《석九 20》
- 困흐면 즈오놋다(困則睡) 《金삼 10》
- 오직 즈오라셔(只睡) 《杜초八 47》
- 즈을오져 오직 스치노리(只想眠) 《杜초八 51》
- 물미틔셔 즈오놋다(水底眠) 《杜초十五 10》
- 쳐겟 숯지뵈셔 즈을어눌(市上酒家眠) 《杜초十五 41》
- 즈을 時節엔(睡時) 《圓上一之二 151》

이 ‘즈을-(睡)’부터 파생된 명사도 /-甁-/ > /-w-/의 변화를 겪은 ‘즈오름’으로 15세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즈을-, 즈오름’은 다시금 /- · 오-/의 히아투스가 발생하여 약모음 / · /의 탈락을 일으켜<sup>3)</sup> /졸:-/로 바뀐 것이 중

3) 이 히아투스 회피는 《杜詩謄解》에서 ‘조오더니라’, 《訓蒙字會》, 《新增類合》에 ‘조오름’이 보이고 《四聲通解》에 ‘조으다’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5·6세기에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부방언형이고 만일 /봉/이 /ㅂ/과 합류하면 히아투스를 피할 이유가 없고 제1음절에서 / · / > /ㅏ/의 변화를 겪고 또 제2음절에서 / · / > /-/와 원순모음화를 겪은 방언에서는 '자불-'로 결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존불-'의 제2음절에서도 / · / > /ㅏ/의 변화를 겪어 '자발-'이나 '자왈-'을 쓰는 방언이라면 '해자바리, 해자와리'와 같은 방언형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언에 物로서의 '해바라기'가 들어왔을 때에 함홍지역의 이북에서는 '해자바리'로 그 이남에서는 '해자우리'로 쓰이는 것은 각각 /해(日)#[자불(眞)+이]/와 /해(日)#[자울(眞)+이]/로 의미는 같게 형식은 차이 있게 인식했던 것이고 '해바라기'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郭忠求(1997)에서는 강원도 통천에서 '해자구리'가 쓰인다 하고서 이를 'p > k'(해자부리~해자구리) 변화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p > k'는 'p > p'와 'p > w'와의 접촉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줄고 1976). 방언형 중에서 '해자불'은 '-이'가 탈락된 것이고 '해자부래기, 해자우래기'는 '-아기'에 의한 파생과정이 덧붙였음을 물론이다.

다음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는 '해가우리'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이에 속하는 방언형 가운데서 일단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황해도 남부지역인 벽성군에서 쓰이는 '해가우리'이다. 이를 /해(日)#[갸울(傾, 倏)+이]/의 구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 해자부리'의 경우와는 달리 物로서의 '해바라기'가 평안남북도나 황해도에 들어왔을 때에 '해(日)#[갸울(傾)+이]'로 인식되어 이 지역의 화자들이 인식한 대로 그들의 방언으로名을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갸우리'에서 '해가우리, 해개우리' 등은 /-ㅑ-/의 여러 방언 음운사가 반영된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각 하위방언에서 각각의 음운변화가 이루어진 나중에 '해바라기'의 방언형이 형성되었다면 각각 그 어원을 /해#[갸울+이]/, /해#[갸울+이]/, /해#[개울+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의미는 '日傾(𣎵)花(?)' 정도를 공통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 가운데서는 '해가우리, 해갸우리, 해개우리' 등 이외에 '해가부리, 해갸부리, 해개부리' 등을 쓰는 경우가 있다(cf.《조선어방언사전》). 비록 15세기 이후의 한글자료에서는 '기울-', '갸울-' 등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 봉/은 보이지 않으나, 현대 방언에는 '기분-' 등이 쓰이는 사설로부터 미루어, '\*기불-'을 재구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해석하여 '해가부리, 해갸부

리'의 재구형을 가정한다면 그것은 /해#가불+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함경남북도는 기본적으로 / 봉/ > /臼/과 같은 합류방언권이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 봉/ > /w/과 같은 음운변화를 겪은 방언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불-, 기불-/을 가정한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함경남북도의 방언에서는 '기울다'를 '지부다(찌부다), 지불다(찌불다)'로 쓰고 있으나 평안남북도나 황해도의 방언에서는 /臼/ 없이 쓰이고, 이 사정은 중국 조선족의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다.<sup>4)</sup> 따라서 '해바라기'에 대한 평안도·황해도의 방언형의 기원은 /해#갸울+이/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해가부리, 해개부리' 형은 함경남북도의 방언에 힘입은 것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元平安道方言에 속하는 중국 요녕성 심양지역에서 '해가부리'가 쓰인다면 그것은 차용형이든지 아니면 '해가우리 + 해자바리 → 해가부리'와 같은 혼효형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밖의 '해구와리, 해구랭이'는 혼효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까지 방언형을 '해바라기'계와 '해자부리'계 및 '해가우리'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바, 이들은 각각

'해바라기'계 : /해(<해, 日)#바라(<叭拉-, 向)+이/

(cf. /해(<해, 日)#발(<발, 傍)+이/)

'해자부리'계 : /해(<해, 日)#자불(<자불-, 睡)+이/

'해가우리'계 : /해(<해, 日)#갸울(<갸불-, 傾)+이/

와 같은 造語라고 보았다.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이와같이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굳어진 개념이 다르고 그리하여 명칭까지 달리 붙여질 수 있는 것이다. 공통점은 '해(日)'요 차이점은 '바라-(向)', '자불-(睡)', '갸울-(傾)'이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sunflower(영어), Sonnen-blume(독어), 및 tournesol(불어), 히마와리(向日葵)(일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

4) '(밀)기울'의 방언형도 그 분포는 좀 차이가 있으나 / 봉/ > /臼/과 같은 합류방언권에서 는 대체로 '(밀)지불, (밀)찌불'로 나타나 같은 현상을 보인다.

## 3

지금까지 언급한 해바라기, 해자우리, 및 해가우리 중에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은 ‘해바라기’뿐이고 나머지는 방언자료집에 수록된 것이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어찌 정착되었는가.

‘회부라기’가 등장한 문헌은 《物譜》가 이른 것인데, 이는 ‘向日蓮’이었다.<sup>5)</sup> 이것이 정확히 어떤 식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현재 필자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事類博解》(1836)의 <花卉門>(38b)에

○ 向日花 向日蓮 히바락이

가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여기서 ‘向日花’와 ‘向日蓮’이 동의어 또는 유의어 일 가능성성이 크다. 왜냐하면 《事類博解》는 유의어들을 끓어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字典 중 《字類詳釋》(1856)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菊 아옥규 陽草百菜之 主四時之饋又 히발	아기규 傾葉向日不照其根能 衡足又終一主上一首也
--------------------------	-----------------------------

여기서 ‘히발아기’는 그 주석 내용으로 보아 분명히 向日花이다. 유희(柳僖)(1773~1838)의 《物名攷》에는 ‘黃蜀葵’라는 표제어 아래에 “……初生大花如碗未開東暮西傾之日々花”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일일화는 이미 《詩經諺解(物名)》, 《東醫寶鑑》 등에 등장했던 것이나, 이것이 정확히 ‘해바라기’에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事類博解》에는 ‘向日花, 向日蓮’에 대하여

5) 이 문헌은 李家源(1960)에 의하면 순조 2년(1802)에 李載威(1745~1826)가 쓴 物譜序 가 붙어 있다. 한편 《才物譜》(아세아문화사 영인본)에는 黃蜀葵에 ‘해바라기(……開花之時 朝東傾 暮西傾 以向日 故一名向日花 每日一開花 久漸故一名日々花 又日其形而名日日則金蓋)’라 주석을 달았는데, 金根洙(1980) 해제에 의하면 이 문헌의 원본은 정조 22년(1798)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 영인본은 그 내용이나 표기로 보아 後寫本임이 틀림없다. 흥미있는 것은 ‘向日花, 日日花’ 등의異名 자료이다.

'해바라기'가 달려 있고 '蜀葵花(접시꽃)'는 별개의 항목 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해바라기'는 문헌상으로는 19세기의 《物譜》, 《事類博解》, 《字類註釋》 등에 보이므로 우리말에서는 늦어도 19세기 전기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해바라기'는 《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1880)에

해바라기꽃, HĀI-PĀ-RA-KI-KKOT, -TCHI. 向日葵. tournesol, héianthe, esp. d'héliotrope

라 실려 풀이되었고 계일의 《韓英字典 Dictionary Corean-English》(1897)에도

해바라기 s. 向日花(향홀- \*향) (날- \*일) (꽃- \*화) The sunflower. *Helianthus annuus*. See 향일화.

향일화 l. 向日花(향홀) (날) (꽃) The sunflower. *Helianthus annuus*. See 해바라기.

와 같이 나타나며, 그 뒤 《법한즈던 Petit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1901), 《字典釋要》(1909), 《新字典》(1915) 등에 계속 실렸다. 《朝鮮語辭典》(1920)을 거치면서 국어사전에는 '해바라기'의 표기로 계속 표제어로 옮겨 있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해바라기'에 해당되는 漢字語의 문제를 간단히 보자. 《漢朝植物名稱詞典》(1982)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向日葵 해바라기 (向陽花, 朝陽化<山東>, 菓化<通稱>, 太陽花<四川>, 照日花, 日照葵<山西>, 向日花, 葵, 日輪草, 車子蓮, 日圓<日本>)

이에 따르면 '해바라기'를 지칭하는 현대 漢語는 向日葵가 될 것이다. 정확히 '해바라기'를 지칭하는 한자어는 이미 앞에서 여러 字典이나 辭典을 통해서 보

았듯이 ‘向日花, 向日葵’이었다. 그 이전에 쓰였던 ‘葵花, 日日花, (黃)蜀葵花’ 등은 비록 ‘해바라기’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식물들이라 해도 ‘해바라기’ 자체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현대국어 사전들에서는 대체로 ‘해바라기’에 대한 한자어로는 ‘향일화(向日花)’가 가장 많이 실려 있고 ‘촉규화(蜀葵花)’는 ‘해바라기’ 와는 다른 중국 원산의 ‘접시꽃’을 지칭하는 아육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실려 있다. 그리고 ‘규화(葵花)’는 아직도 ‘해바라기(葵)’와 ‘접시꽃’을 다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向日葵’는 분명 漢語에서 들어온 차용어라 할 수 있다. 《新字典》(1915)에는 ‘向日葵 해바라기’로 되어 있는데, 向日은 《左傳》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해바라기’를 약재명으로 부를 때에는 ‘규곽(葵藿)’이라 한다. 따라서 이 명칭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접시꽃’에 해당되는 ‘黃蜀葵’도 역시 약재명으로 불릴 때에 쓰인다.

## 4

조선시대에는 ‘규간(葵懇)’ 또는 ‘규침(葵忱)’이라 하여 임금에게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바로 向日性(héliotropisme)에 초점을 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규사(葵史)》란 책은 우리나라 역대 서얼(庶孽)에 관계된 사실을 모아 엮은 책이어서 이때 ‘葵’는 서얼을 뜻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한자생활에 젖어 있던 조선시대에도 物과 名의 일치를 어렵게 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흔히는 向日性에 초점을 두어 ‘해바라기’란 명칭을 썼으나,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일컫는 向日花인지는 모를 일이다. ‘희브라기, 희브락이’ 등이 ‘向日花, 向日葵’를 뜻하는 단어로 쓰인 것은 현재의 문헌에 한정시킨다면 19세기의 전기가 되고 차츰 확대되어 사전의 표제어로 확고히 실려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정이 좀 복잡하게 방언에서는 분화되었다. 즉 ①해바라기(해#바라(望, 向)-기) ②해자부리(해#자불(睡)+이) ③해가우리(해#가울(傾)+이)로 지역에 따라 쓰여 物을 인식한 성질이 다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漢語로

부터 차용한 向日葵나 向日花라는 한자어는 방언 내지 구어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고 문헌에 주로 한정되어 쓰이고 있으며, 葵藿은 약재명으로만 쓰인다.

安秉禧·金容稷선생님 두 분의 停年을 맞아 ‘向日花’의 마음은 있었으나 이 글이 葵(아욱, 서얼)에 지나지 않은 결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 참고 문헌

- 郭忠求(1994), 《咸北 六鎮方言의 音韻論》, 太學社.
- \_\_\_\_\_(1997), <국어사전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 金根洙(1980), 《才物譜》(解題), 亞細亞文化社.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金英培(1978), <平安方言의 舊相>, 《東岳語文論集》 11.
-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대출판부.
- 리윤구·심희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朴昌遠(1985), <國語有聲障碍音의 再構와 그 變化>, 《국어국문학》 93.
-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1), 북경·민족 출판사.
- 안옥규(1989), 《어원사전(詞源辭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李基文(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 李秉根(1976) <‘새개이(土蝦)’의 通時音韻論>, 《어학》(전북대) 3.
- \_\_\_\_\_(1996), <‘질경이(車前草)’의 語彙史>,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_\_\_\_\_(1998), <‘마름(菱仁)’의 語彙史>, 《방언학과 국어학》(근간), 太學社.
- 李崇寧(1954), <屑音攷>, 《서울大學校論文集》 1.
- 鄭承喆(1995), 《濟州島方言의 通時音韻論》, 太學社.
- 鄭仁浩(1997), <ㅂ-불규칙 용언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 周時經(1914), 《말의소리》, 신문관.
- 崔鶴根(1978),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I - IX).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 岩波書店.